

교양과목 절대평가 논의는 계속돼야

‘교양과목 전면 절대평가 도입’을 두고 양캠 후마니타스칼리지 입장 차가 좁혀질 기미가 없다. 서울캠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비할 수 있으며 코로나 시기 이미 5학기 동안 절대평가를 시행했던 경험이 있기에 ‘일단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국제캠은 “비정상적인 코로나 시기를 준거로 삼을 수 없으며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과목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학가에서 절대평가 제도가 자취를 감춘 배경에는 2017년까지 교육부에서 실시했던 ‘대학 구조 개혁평가’가 있다. 당시 교육부는 학점 인플레이 현상을 막고자 평가 항목에 ‘성적분포의 적절성,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의 적절성’을 포함했고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학은 상대평가를 원칙

으로 제도를 전환했다. 또한 상대평가 제도는 ‘공정’을 담보하며, 학생 성취도를 향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출범할 당시부터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공동체적 가치를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학생의 성취도를 집단 안에서 비교·판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현재의 평가 제도는 교양 교육마저 과도한 경쟁의 영역으로 만들어 후마니타스칼리지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학생사회의 주된 의견이다. 교육 측면에서도 상대평가 제도는 성적 부여 퍼센트를 제한하기에 교수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더욱이 경쟁에 지친 몇몇 서울권 대학은 다시 절대평가로 회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는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했으며, 연세대 또한 교양 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성균관대도 일부 교과목에 절대 평가제를 시범 시행 중이다. 이화여대는 교수가 임의로 평가방식을 택하는 ‘학부 성적 교수자율평가제’를 도입했다.

물론 다른 학교가 절대평가를 시행하니 우리도 묻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양교육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성적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는 좀 더 전향적인 방향성이 필요해 보인다.

선행해야 할 부분은 양캠 모두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일단 도입’하자는 서울캠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국제캠은 반대를 고수하기 앞서 단계적 준비와 관련한 실질적인 안을 보

여줘야 한다.

국제캠이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절대평가 전환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할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학점 인플레이의 우려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마니타스(Humanitas)’는 우리학교의 핵심 교육 방침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근간으로 작용한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성적평가 방식을 논하는 과정은 그 가치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것이다.

양캠 모두 상대평가가 교양과목의 교육학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 상황이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캠이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더욱 성장한 하나의 후마니타스칼리지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한지붕 두축제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지난 3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삼체’는 물리학 난제 중 하나인 ‘삼체 문제’를 다룬다. 중력을 가진 두 물체의 상호작용과 궤도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이체문제’는 쉽지만, 물체가 세 개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삼체 문제’다.

그런데 여기 ‘이체문제’조차 어려운 곳이 있다. 두 개의 총학을 가진 우리 학교다. 두 대상의 상호작용이 불안정해 보인다. 이번 대동제가 그랬다.

대동제가 다가오면 학생들은 양캠 총학이 기획한 축제를 비교·분석하기 바쁘다. 분석이라 하기에 뭐하다. 유일한 평가 항목이 ‘연예인 라인업’이기 때문이다. 더 유명한 연예인을 섭외하는 총학은 학생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비교적 그렇지 못한 총학은 졸지에 ‘무능’에 이어 ‘비리 의심’ 타이틀을 달게 된다. 지난달 열린 국제캠 축제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섭외 연예인이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이는 두 축제의 궤도를 따라 작용하는 양캠 총학 간의 차이에서 더 심화됐다. 서울캠 축제 기간 설국버스 증차 논의가 무산되고, 승차권 리셀 및 학습권 침해 피해가 발생했다. 사실 국제캠 총학은 버스회사 측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서울캠 총학과 협의하며 유관부서에 증차를 요청했다.

하지만 두 총학의 다른 정책으로 증차는 무산됐다. 증차는 내부 사정상 교비가 아닌 자치회비로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캠은 자치회비로 증차한 설국버스 이용 대상을 “자치회비를 납부한 학생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다. 국제캠발 버스 이용자가 국제캠 학생이 다수인 점, 버스 이용자가 모두 자치회비 납부자인 것을 확인해야 했던 점을 고려한 듯하다. 하지만 특정 노선 이용자가 모두 한 캠퍼스 학생으로 한정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증차 무산은 아쉬웠다.

‘이체’ 총학의 문제 해결 실마리는 각 캠퍼스에 별도의 학생 자치 체계를 두되, 지리적으로 떨어진 캠퍼스 간 차이를 극복해 나간다면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서울캠 총학은 공약으로 ‘연합 선본제도’를 내건 바 있지만, 임기 중반을 넘기는 시점에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양캠 총학의 적극적인 정책 차이의 최소화도 두 총학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격식없는 소통으로

황인찬 기자
phillip0503@khu.ac.kr



김진상 총장이 취임 후 재학생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소는 국제캠 중앙도서관 벤티 열람실이었다.

대학본부와의 간담회는 회의실이나 행사장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서관 열람실에서의 간담회는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벤티 열람실은 ‘벤티리’ 자유롭게 대화하는 공간’이란 의미를 지녔다. 총장의 학생과의 허물없는 소통 시도는 앞으로 4년의 임기를 남겨둔 총장에게도, 학생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다. 당장 내년부터 도입될 무전공 제도 안착부터 재정 다변화까지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 상호 소통이 없다면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

이다. 학생들은 총장에게 요즘 유행하는 ‘MBTI’와 소위 ‘CC’라 불리는 캠퍼스커플 경험을 묻기도 했다. 총장이 질문에 답할 때마다 객석에선 웃음이 터져나왔다. 총장의 격의 없는 답변은 학생들의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파격적인 시도에도 아쉬운 점은 있었다. 자유롭게 대화하자는 말과는 달리 절반 이상의 질문은 사전에 선별됐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족했다. 간담회는 사전에 양캠 재학생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학생 신청 인원은 미달이었다.

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학생 대상 후속 간담회가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힘들게 마련한 행사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활기찬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학생은 자기 일이라는 생각으로 용기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구성원이 누구든 총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앞으로 도 자주 있길 바란다.



만평 수평적 위치에서 바라보는 총장과 구성원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자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인쇄 아이피디